



가수 조권이 싱글 '새벽'을 출시했다. 지난해 16년간 몸담은 JYP엔터테인먼트를 떠나 내놓은 첫 앨범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새벽'은 조권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애절함이 잘 묻어난 곡이다. 사진제공 | 큐브엔터테인먼트

새 싱글 '새벽'으로 돌아온 조권

내가 가진 끼 발라드만 부르기에 아깝지 않습니다

빠를 문을 거러던 JYP서 큐브로 이직 있을 만큼 있었죠...터닝포인트 필요 4명이 아니라 혼자 서니 벅차고 어색 영원히 2AM...활동은 잠시 미뤄둔 것

가수 조권은 '두 얼굴'을 가졌다. 한껏 분위기를 잡고 애절한 발라드를 부를 땐 영락없이 '발라드 황태자'이고, 예능프로그램에서 잔망스러운 춤사위를 선보여 얻은 '깡권'의 모습은 평상시에 드러난다. 조권이 2년 만에 솔로로 돌아오며 '깡권' 이미지를 내려놓고 전자의 모습을 강조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착각이었다. 그는 오히려 "그게 나"라며 자신이 가진 매력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겠다고 했다.

10일 오후 서울 한남동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첫 번째 싱글 '새벽' 발매 기자회견에서 만난 조권은 예상을 뒤엎는 답변을 여러 번 내놨다. "그게 저니까요"라는 말과 함께.

이날 자리는 조권이 16년 동안 몸담았던 JYP 엔터테인먼트를 떠나 현아, 비투비 등이 소속된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내놓는 첫 앨범이라는 점에서 음악적인 변화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 '새벽'은 조권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에 애절함이 잘 묻어난 곡이다. 새벽녘에 느낀 쓸쓸함과 공허함을 노래로 표현했다.

"엄청난 변신을 기대했다면 실망할 것 같다. 사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너무 한꺼번에 바뀌어버리면 어색할 수 있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다."

조권은 이날 "2AM의 조권"이라고 인사하며 "그동안 4명의 멤버가 함께 했는데 이렇게 혼자 서니 벅차고 어색하다"고 말했다. 솔로로 나서면서 '가수 조권'이라고 소개하지 않는 것도 흥미로웠다. 2AM은 조권을 비롯해 임슬옹, 정진운, 이창민 등 멤버 전원이 각기 다른 연예계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활동도 중단된 상태다.

"2AM과 조권은 하나다. 내 인생의 시작점이고 끝나는 날도 2AM으로 끝날 것이다. 지금은 각기 사정에 따라 다른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2AM이 해체된 것은 아니다. 대중이나 팬들은 보이는 것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안다. (임)슬옹이 형이 군 입대하기 전에 4명이 모여 앨범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새 앨범을 낸다고 해도 일주일 밖에 활동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잠시 미뤄둔 거다. 각자 회사

와 계약할 때 2AM 활동과 관련해 따로 조항을 넣었다. 법적으로 보장된 거라 언제든 할 수 있다."

제법 진지해졌다. 2001년 SBS '영재 육성 프로젝트'에 출연했을 당시 10대의 옛된 모습을 기억하는 시청자들이 아직 많은데 어느덧 그가 서른이 됐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 굳이 나이를 언급하고 싶지 않다. 하하하! 지난해 '아홉수'라고 말 할 정도로 힘들고 고된 시간을 연속으로 보냈다. 그래서 인지 빨리 새해가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맞이하고 보니 다시 태어난 기분이다."

그가 새롭다고 느낀 것은 새 소속사에서 새 출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조권이 지난해 JYP엔터테인먼트를 떠나는 자체가 이슈가 될 정도로 그는 JYP의 상징이기도 했다.

"제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큰 이슈였다. 다들 여기서(JYP) 빠를 문을 거라고 얘기했다. 잔류냐, 이적이냐 고민을 했는데 결론은 하나였다. 있을 만큼 오래 있었다는 거.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다. 오래 있으면서 내가 펼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했던 것 같더라. 터닝포인트가 필요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그에게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예전에도 그랬듯 지금도 여전히 유쾌하고 통쾌하다. 그리고 그에게 솔리 불필요한 시선이나 오해 따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조권은 그동안 예능프로그램 '골든 탭버린'과 뮤지컬 등에서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높은 구두를 신고 성(性)의 경계를 넘어섰다.

"나를 굳이 숨겨야 되나 싶다.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께 '저런 애가 어디서 태어났느냐'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수많은 끼를 발라드만 부르면서 활동하고 싶지 않았다. 그룹으로 활동할 때는 발라드에 집중하겠지만 조권으로 혼자 활동할 때는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고 싶다. 내가 무대위에서 무엇을 해야 행복하고, 공허하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고민한다. '남자가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다."

어렸을 때 데뷔 해 오랜 연예활동을 하며 터득한 일종의 방식이다. "남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그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anjiny@donga.com

연예뉴스 HOT 5

손예진, 5년 만에 안방극장 컴백

배우 손예진이 5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한다. 손예진은 '밀회' '풍문으로 들었소'를 만든 안판석 PD가 연출하는 종합편성채널 JTBC 금토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출연을 확정했다. 3월 방송 예정인 드라마는 아는 사이로 지내온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서 겪는 이야기다. 앞선 드라마에서 다양한 소재를 차용하면서도 사회풍자를 날카롭게 담아낸 안판석 PD는 그동안 유지한 스타일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평범한 여자와 남자의 사랑 이야기에 집중한다. 손예진은 일도 사랑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공허한 30대 여성을 연기한다. 손예진은 "안판석 감독님 특유의 섬세한 정서와 현실적이면서 공감가는 대본이 만나 어떤 작품이 탄생할지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역으로는 연기자 정해인이 거론되고 있다.

장동진·김하늘, SM C&C 떠난다

배우 장동진과 김하늘이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한다. 두 사람은 2012년부터 몸담은 매니지먼트사 SM C&C와 전속계약이 끝나자, 여러 고민 끝에 재계약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다. 장동진은 1인 기획사 설립을 결정했다. SM C&C는 10일 이 소식을 알리며 "향후 회사 측과 다각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동진은 4월 방송 예정인 KBS 2TV 드라마 '슈츠'에 출연한다. '신사의 품격' 이후 6년 만의 안방극장 복귀다. 김하늘은 올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만큼 다양한 방향에서 활동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신과 함께:죄와벌'에 송제대역 역으로 특별출연하기도 했다.

곽도원·2PM, 제주도 홍보대사로

배우 곽도원과 그룹 2PM이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로 발탁됐다. 제주도 측은 "올해 '4·3 70주년 2018 제주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평화의 섬 이미지를 세계에 확산하기 위해 곽도원과 2PM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9일까지 2년 동안 활동한다. 곽도원은 촬영이 없을 때면 주로 제주에 머물고 있다. 벌써 3년째 제주에서 거주하는 인연이 있다. 2PM은 아시아는 물론 해외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자랑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년 동안 청정과 공존의 섬 제주 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알리고 감귤 등 제주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아시아 지역의 한류 스타로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의 이미지도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한류스타 박해진, 中 시상식 초대

한류스타 박해진이 중국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초대받았다.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는 10일 "박해진이 중국 산둥에서 열리는 '2018 녹상-소지풍상 시상식'에 초청됐다"고 밝혔다. 고고도미사일발사체(사드) 이후 중국과 대중문화 교류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서 나온 소식이라고 눈길을 끈다. 이를 계기로 '한한령' 완화에 대한 기대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시상식은 중국 스타일 매거진 소지시크가 주최하며 패션, 영상,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스타들을 선정한다. 소속사 관계자는 "총 1만 여명의 관객과 시나닷컴, 소후닷컴 등 중국 유명 포털사이트와 50여개의 주요 매체가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라고 소개했다. 한편 박해진은 나나, 박시양 등이 출연하는 사전 제작 드라마 '사자' 촬영에 한창이다.

강타, 아이돌 육성 프로 멘토 출연

가수 강타가 아이돌 육성 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에 멘토로 나선다. 강타는 2월1일 첫 방송하는 케이블채널 라이프타임 '아이돌맘'에 출연한다. 강타의 출연으로 방송에서 그가 공개할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타는 1996년 5인조 아이돌그룹 H.O.T.로 데뷔해 인기는 물론 실력까지 인정받았다. 강타뿐만 아니라 강타와 같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또 다른 가수들도 멘토로 출연할 예정이다. 이들이 가수로 활동하면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풀어낼지 시선이 쏠린다. 제작진은 "멘서를 꿈꾸는 아이들과 엄마들의 리얼리티 예능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끈 프로그램 '댄스맘'에서 영감을 얻어 한국식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